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시

인도 : 임춘배 목사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5장 (통일찬송가 55장)	
교 독 문	교독문 4번 (시편 5편)	
찬 양 과 경 배	310장 (통일찬송가 410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디모데후서 1장 9~14절	고린도후서 8장 1~5절
설 교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임춘배 목사)	드림의 예배가 주는 기쁨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드보라회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조예은 부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 이태수 장로

찬 양	신영문, 전희영 집사	
기 도	김미숙 권사	
성 경 봉 독	골로새서 1장 24~25절	
말 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기 도	인도자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시 35편 1~17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식사는 사무처리회 관계로 2부 예배 직후 분당에서 제공됩니다.
3)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사 무 처 리 회** 오늘 11시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 제 직 헌 신 예 배** 오늘 오후 예배는 제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 월 삭 새 벽 예 배** 2월 1일(수) 월삭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주관: 흑석 1,2셀 / 서초셀
- 총 동 원 금 요 기 도 회** 2월 3일(금) 총동원 금요기도회가 청년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 부 서 사 역 조 정** 다음 주일 (2월 5일) 2부 예배 후 1층 안디옥실에서 부서 사역 조정이 있습니다.
- 유 초 등 부 겨 울 성 경 학 교** 2월 5일, 12일, 19일, 26일 주일(4주)
주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이'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여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찬송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통 208)

본문 :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말씀 : 흔히들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시간과 비교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그럴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이동하며 율법을 듣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시련은 흥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흥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생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감사한 것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매일 매일 내리는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를 먹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양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어 받아먹지 아니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결코 힘 있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뿐만이 아니라 갈증 속에 있을 때는 바위를 여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도 하였습니다. 종종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영적인 모습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과 닮아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영적 기갈에 빠지지 않고 살아 숨 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진 중앙의 성막에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보이십니다.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상처럼 우리의 마음 빼앗는 것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처럼 탐심으로 울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제 목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딤후 1:9~14)

서 론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이해

- (1) 복음이란? 구원을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 (2)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심(10절).
- (3) 복음의 혜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심(9절).
- (4) 복음에 대한 의무: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음(11절).
- (5)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12절).
- (6) 복음에 대한 의무를 버린 자와 찾는 자:
 - ①부게로와 허모게네, ②오네시보로의 집

본 론

2. 교훈

- (1) 복음이란 무엇인가?
- (2) 복음이 주는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
- (3) 복음에 대한 의무를 찾고 있는가?

결 론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복음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오후예배 기도	김미숙 권사	김점분 권사
주 방 봉 사		루디아회

매일 Q.T.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	날짜 : 1월 30일
찬양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본문	사무엘상 4:12~22		
말씀요약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살육당하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시부와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목상질문 1	엘리의 죽음 4:11~18 진영에서 도망쳐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단호해야 할 신앙 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목상질문 2	바느하스 아내의 죽음 4:19~22 바느하스의 아내를 절망에 빠뜨린 일은 무엇인가요? 인간적이 아쉬움을 버리고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4장 21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일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자 바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떠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포로로 잡히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분의 영광은 포로로 잡히고, 우리의 죄성은 폭로됩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앞에서 겸허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자기 합리화에 갇혀 변명을 늘어놓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철저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경외함을 잃지 않는 예배자”	
찬양과 기도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새 338)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친 신비주의적 하나님 이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면 성경을 대할 때, 초자연적인 사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이나 일상적인 사회관계에 소홀하게 됩니다. 둘째, ‘지나친 인본주의적 하나님 이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면, 신비하거나 초월적인 내용은 신화나 전설 같은 소망을 담은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상적인 내용을 일반 사회나 역사에서 상식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셋째, ‘종교 혼합적, 종교 통합적 하나님 이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종교나 과학적 지식과 비교해 해석하는 것으로 신에 대한 이해를 일반화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만 신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이런 태도를 지닌 이들은 신들이 서로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와도 소통하는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편파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6:13~21		
목상포인트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나의 자원이 빈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태도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전하며,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성도가 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 이르자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13~15절)		
적용하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드러나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명하신 것은 기쁘게 감당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믿음의 결단과 승리의 응답	날짜 : 2월 3일
찬양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본문	사무엘상 7:1~11		
말씀요약	하나님의 궤가 기랏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블레셋을 큰 우레로 물리치십니다.		
목상질문 1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7:1~6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앙 회복을 위해 내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김 7:7~11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공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닥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7장 7~8절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같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현실의 벽에 가둡니다. 그러나 기도는 현실의 벽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애통하는 심령과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 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매일 Q.T.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날짜 : 1월 31일
찬양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본문	사무엘상 5:1~12		
말씀요약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둡니다. 이후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지고 잘리며, 하나님은 아스돗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 가는 가드와 에그론에도 재앙이 계속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목상질문 1	다곤 신상을 부수심 5:1~5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진 모습은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이심을 알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심 5:6~12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5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블레셋과 싸우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적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패배와 절망의 자리는 소망 없는 끝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도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지키시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용서하게 하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신뢰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권능임을 확증한 시험	날짜 : 2월 1일
찬양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6:1~12		
말씀요약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 예물로 금독종 다섯과 금취 다섯을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이때 새 수레를 만들어 멩에를 메어 보지 않은 것 나는 소 두 마리로 끌게 합니다. 소들이 치우치지 않고 뵤세메스로 곧장 가니,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목상질문 1	<p>언약궤와 속건제 6:1~6</p> <p>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가요?</p>		
목상질문 2	<p>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함 6:7~12</p> <p>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p>		
한절목상	<p>사무엘상 6장 5절</p> <p>하나님께는 합당한 방법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속건제로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재앙을 멈추시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시 51:6).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p>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완고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저를 내어 맡기며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 '홀로' 이루신 승리의 귀환	날짜 : 2월 2일
찬양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본문	사무엘상 6:13~21		
말씀요약	언약궤가 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수레의 나무를 파고 암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그런데 뵤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많은 이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전령을 가랏여아림으로 보내 궤를 옮겨 가라고 요청합니다.		
목상질문 1	<p>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 6:13~18</p> <p>언약궤가 '홀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의 실패에도 하나님 홀로 성취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p>		
목상질문 2	<p>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하나님 6:19~21</p> <p>하나님이 뵤세메스 사람들을 공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p>		
한절목상	<p>사무엘상 6장 14~15절</p> <p>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지한 블레셋의 속건제로 시작된 언약궤의 귀환은 변질 된 이스라엘의 번제로 마무리됩니다. 번제로 마치는 언약궤 이야기에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시작되길 원하시는 그분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한 인생은 무지와 변질을 반복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p>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인지 철저히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